

중국어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 재고(再考)*

이 선 희**

<目次>

I. 들어가며	III. 중국어 감각형용사의
II. 선행 연구	공감각적 의미전이 양상
	V. 나오며

I. 들어가며

‘공감각’은 특수한 수사법으로 오래전부터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등의 감각이 서로 교차하고 통한다는 심리적, 생리적 경험은 누구나 있다.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의미가 전이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국어 예를 들면, ‘꽃처럼 붉은 울음’이란 표현은 ‘울음’이라는 ‘청각적’ 표현을 ‘꽃처럼 붉다’는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낸 경우로, 청각의 시각화에 해당된다. 이처럼 한 감각에 속하는 사물을 표현할 때 다른 감각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언어적으로 새롭고 신선한 표현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흔히 ‘공감각’은 일종의 특수한 수사기법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주로 시적 표현에 자주 등장해왔다. 그러나 근래 유행한 인지언어학의

* 본 연구는 2010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본고는 영남중국어문학회 2012년도 상반기 전국학술대회(2012.5.19., 경북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 啓明大學校 中國語文學科 助教授

관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 영역(근원영역)이 다른 감각영역(목표영역)에 투사되어 이해되는 ‘은유’라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은유는 언어의미 확장의 가장 중요한 기제임이 확인되었다. ‘공감각’은 생리, 심리 현상이면서 동시에 언어, 문화 현상인 것이다.

본고는 ‘한중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 연구’의 한 부분으로, 현대 중국어를 대상으로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선행연구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이후 한중 대조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의 기제를 인지언어학적으로 살펴보고 한중 공감각적 의미전이 양상을 대조, 분석하고자 함을 밝힌다.

‘감각형용사(sensorial adjective)’라 함은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감각의 범주와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오관(五官), 즉 ‘눈, 귀, 피부, 입, 코’에 의해 지각되는 시각(vision), 청각(sound), 촉각(touch), 미각(taste), 후각(smell)을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이들 다섯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현대 중국어 감각형용사를 연구범위로 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오감(五感)은 전 인류의 공통적인 생리현상이므로, 이를 언어에 반영한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 전이 역시 언어 보편성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하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 첸중수(錢鍾書) 역시 “색깔에도 온도가 있으며, 소리에도 모습이 있고, 따뜻함과 차가움에도 무게가 있으며, 냄새에도 칼끝의 날카로움이 있다”며 공감각적 전이를 이야기한 바 있다.¹⁾ 하지만 공감각은 생리현상인 동시에 언어, 문화 현상이므로 한 민족의 언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에서 감각을 직접 나타내는 감각형용사가 어떤 감각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파생되는지를 살펴보려는 본 연구는, 중국어의 언어의 의미연구에 있어

1) “五官的感覺，簡直是有無相通，彼此相生。顏色似乎會有溫度，聲音似乎會有形象，冷暖似乎會有重量，氣味似乎會有鋒芒。” 錢鍾書(1994), 《七綴集》，上海古籍出版社 p.321, 劉珍(2004)에서 재인용.

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간 영어나 국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미 전이 연구가 중국어 등 제2외국어를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연구현실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II. 선행 연구

김찬화(2010:20)의 지적대로 중국내 감각어의 연구는 저조한 실정이며, 감각형용사 중에는 색채어에 관한 연구는 눈에 띄나, 아직까지 감각형용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공감각은 중국어로 ‘移覺’, ‘通感’ 등으로 불리는데, 최근에는 거의 ‘通感’으로 통일된 듯하다. 중국학술정보(CNKI)에서 ‘通感’에 관한 연구를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은 논문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2-5페이지의 단편적인 연구이며, 영어를 대상으로 하거나 간단한 영중 대비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중국어 감각형용사를 대상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공감각적 전이를 논의한 것으로, 영어와의 대조연구를 진행한 蔣紅豔(2008)의 <英漢通感的認知比較研究>²⁾와 일본어와의 대조연구를 진행한 李穎(2010)의 <通感的日漢比較研究——以表示五官感覺的通感形容詞爲中心>³⁾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고대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여기서는 후자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李穎(2010:9)에서는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의 예를 《現代漢語詞海》, 《現代漢語大詞典上下》, 《新編漢語形容詞詞典》에서 모두 수집한 후, 어떤 한 감각이 어느 감각으로 전이가 더 많이 일어나는지 통계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 표는 중국어 감각형용사의 전이를 조사한 것으로, S₁은 출발감각이고 S₂은 전이

2) 蔣紅豔, <英漢通感的認知比較研究>, 湖南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3) 李穎, <通感的日漢比較研究>, 西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된 감각으로 가리킨다. (李穎, 2010:11)

S ₁ \ S ₂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합계(s ₁)
촉각		2	7	17	25	51
미각	2		4	4	5	15
후각	0	0		1	1	2
청각	0	0	0		3	3
시각	5	6	11	41		63
합계(s ₂)	7	8	22	63	34	134

표를 보면 중국어 시각형용사는 청각으로의 전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이 후각, 미각, 촉각 순이었다. 청각은 시각으로의 전이만 일어나며, 후각은 시각과 미각으로의 전이예가 모두 한 예씩 있다. 미각은 시각으로의 전이가 가장 많고, 청각과 후각은 모두 4개의 예로 같으며, 촉각으로의 전이가 가장 적다. 촉각은 시각으로의 전이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청각, 후각, 미각의 순으로 전이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를 감각별로 전이가 발생하는 것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는 왼쪽의 전이가 오른쪽 보다 큼을 의미)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 촉각
 청각 → 시각
 촉각 → 시각 > 청각 > 후각 > 미각
 미각 → 시각 > 청각 = 후각 > 촉각
 후각 → 시각 = 청각

국내 중국어를 대상으로 한 감각형용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는 김찬화(2010)의 《韓·中 감각형용사 의미 구조》⁴⁾가 있다. 감각형용사의 공

4) 김찬화, 《韓·中 감각형용사 의미 구조》, 한국학술정보(주), 2010.

감각에 관한 연구로는 김혜원(2006) <중국어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특징>⁵⁾과 허정영(2011)의 <한·중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대조연구>⁶⁾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모두 중국어 감각형용사를 인간의 오감,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나 세부적인 분류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난다. 김찬화(2010)에서는 공간감각은 시각으로 보았으나, 김혜원(2006)에서는 공감각각을 독립적인 감각으로 볼 지 시각의 하위영역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이다. 또 김찬화(2010)에서는 속도를 시각으로 보았으나, 허정영(2011)에서는 속도를 제외한 빛, 모양, 크기, 위치만을 시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연구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김혜원(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감각형용사를 대상으로 중한사전, 중국에서 편찬된 중국어사전, 관련 논문들, 일상 표현 가운데 공감각의 의미전이 용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국어의 촉각은 시각, 청각, 미·후각으로 의미전이가 발생하고, 또 미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으로, 후각은 미각으로, 공간감각은 미각, 후각, 시각, 청각으로, 시각은 청각으로, 청각은 시각으로 각각 의미전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김혜원, 2006:129)

시각 → 청각
 청각 → 시각
 촉각 → 시각, 청각, 미·후각
 미각 → 시각, 청각, 촉각, 후각
 후각 → 미각
 공간감각 → 미각, 후각, 시각, 청각

하지만 김혜원(2006)은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제한된 사전류와 일상적인

5) 김혜원, <중국어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특징>, 《중국어학연구》 제38집, 2006.
 6) 허정영, <한·중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대조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언어 표현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어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나온 김찬화(2010)와 허정영(2011)의 연구는 비교적 종합적으로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를 분석하고 있다. 두 연구에서는 한중 감각형용사를 다섯 감각으로 나누고, 각각 감각 속성명사, 구체적인 대상물과의 결합 양상을 비교하였다. 결과 김찬화(2010:127)에서는 중국어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시각 → 청각, 시각, 후각
 청각 → 없음
 촉각 → 시각, 청각
 미각 → 청각, 촉각, 후각
 후각 → 미각

허정영(2011)의 연구결과는 이와 또 차이가 난다. 그는 중국어 시각은 청각과 후각으로 전이되며, 청각은 어느 감각으로도 전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후각은 시각과 미각으로 전이되지만, 미각은 다른 모든 감각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허정영, 2011:61, ‘*’는 감각형용사와 구체적인 대상물의 결합이고, 표시가 없는 것은 감각형용사와 감각 속성명사의 결합)

시각 → 청각, 후각
 청각 → 없음
 촉각 →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미각 → 시각, 청각, 후각, *촉각
 후각 → 시각, 미각

이상으로 중국어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에 관한 중국내,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네 연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발	李穎(2010)	김혜원(2006)	김찬화(2010)	허정영(2011)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⁷⁾	청각, 후각	청각, 후각
청각	시각	시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시각, 청각, 미후각	시각, 청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미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청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후각	시각, 청각	미각	미각	시각, 미각

표를 보면 중국어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에 대해 학자들 간에 비슷하면서도 다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감각별로 살펴보면, 시각의 전이양상에 대해서 李穎(2010)은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의 전이를 모두 인정한 데 비해, 김혜원(2006)에서는 공간감각을 시각에 포함시킨다면 청각, 미각, 후각으로의 전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김찬화(2010)와 허정영(2011)은 청각과 후각으로의 전이만 인정하고 있다. 또 청각의 경우 李穎(2010)과 김혜원(2006)은 시각으로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두 학자는 청각의 공감각적 전이가 없다고 보았다. 촉각과 미각은 다른 감각에 비해 공감각적 전이가 활발한 감각임을 알 수 있다. 촉각의 경우 李穎(2010), 김혜원(2006), 허정영(2011)에서는 나머지 네 감각으로 모두 전이된다고 하였으나, 김찬화(2010)에서는 시각과 청각으로의 전이만 인정하였다. 미각 역시 李穎(2010), 김혜원(2006), 허정영(2011)에서는 모든 감각으로 전이된다고 하였으나, 김찬화(2010)에서는 시각으로의 전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후각을 보면 李穎(2010)은 시각과 청각의 전이를 인

7) ()안은 공간감각을 시각영역에 포함시켰을 겨우, 시각의 전이양상을 말한다. 여기서는 다른 학자들과의 비교를 위해 공간감각을 시각에 포함시켜 설명하기로 한다.

정하고 있는 반면, 김혜원(2006)과 김찬화(2010)는 미각만을 인정하고, 허정영(2011)은 시각과 미각으로의 전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에 대해 이처럼 국내외 학자들 간의 연구결과에서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중국어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양상으로 제한하므로, 감각영역에서 다른 인지영역으로 연결되는 감각의 의미전이는 제외하기로 한다.

Ⅲ. 중국어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양상

1. 시각의 의미전이 양상

시각은 눈을 통해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작용으로 사물의 모양, 크기, 위치 등을 지각하는 형용사를 시각형용사라 할 수 있다. 대개 ‘清, 濁, 亮, 暗, 大, 小, 粗, 細, 遠, 近, 長, 短, 高, 低, 厚, 薄, 寬, 窄, 深, 淺, 直, 曲, 尖, 尖銳, 尖利’ 등의 형용사와 색채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이에 속한다.⁸⁾ 시각의 공감각적 전이는 시각형용사가 다른 감각으로 표현됨을 의미한다.

1) 시각→청각

김찬화(2010:113-119)는 중국어에서 공간의미를 나타내는 ‘大小’, ‘高低’, ‘粗細’ 등은 청각으로 의미전이가 발생하지만, ‘長短’은 공간의미가 시간의미로 전이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청각적 전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시각형용사 ‘亮’과 ‘暗’이 청각

8) 김찬화(2010)에서는 시각형용사를 광선의미, 색채의미, 공간의미로 구분하고 공간의미는 다시 1차원 공간,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으로 세분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시각형용사로 하였다.

속성명사인 ‘聲’과 결합되지 않음을 근거로 중국어에서 “‘밝다, 어둡다’의 기본의미에 대응되는 ‘亮, 暗’은 청각으로 전이되지 않는다”⁹⁾고 하였다. 그래서 한국어 ‘밝은 소리, 어두운 소리’는 가능한 표현이지만, 중국어 ‘亮聲, 暗聲’은 가능하지 않으며, ‘清脆(清涼)的 聲音, 低沉的 聲音’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정영(2011)에서도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차이점은 허정영(2011:23-25)은 ‘很長的聲音’과 ‘很短的聲音’은 소리의 진동시간에 따른 표현으로 이 역시 청각적 전이로 보았다는 점이다.

- (1) a. 很大的聲音 / 很小的聲音
 b. 很長的聲音 / 很短的聲音
 c. 很高的聲音 / 很底的聲音
 d. 很粗的聲音 / 很細的聲音

하지만 그 밖의 시각형용사의 청각적 전이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亮暗’을 나타내는 시각형용사는 청각적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언어코퍼스를 검색해보면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밝은 소리’, ‘어두운 소리’가 사용됨과 달리 중국어에서 형용사 ‘亮’이 직접 ‘聲’을 수식하는 형태는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는 소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북경대 언어코퍼스를 검색해보면 ‘亮’이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광선의미의 시각형용사의 청각적 전이가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단음절어인 ‘亮’을 이음절어 ‘明亮’, ‘亮麗’로 바꾸면 소리를 수식하거나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같은 청각적 전이의 예는 이 외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2) a. 夢鴿的聲音明亮而圓潤、甜美而純淨, …… (夢鴿의 목소리는 밝고 예쁘며, 감미롭고 깨끗하다. ……)

9) 김찬화(2010:113)

- b. 到處都是活躍的創造, 到處都是喜悅的笑臉, 到處都是明亮的歌聲; …… (곳곳에 활발한 창조와 기쁨의 웃는 얼굴, 밝은 노랫소리가 있다. ……)
- c. 問及她的病情, 電話裏傳來比過去明顯明亮、開朗的聲音 …… (그녀의 병세를 물으니, 전화에서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발한 목소리가 전해져왔다. ……)
- d. 她一口氣, 像倒水似的說著, 聲音清脆明亮, 像一串小銀鈴在敲擊。(그녀는 단숨에 물을 쏟아내듯이 물을 했다. 목소리는 낭랑하고 밝아 마치 옥구슬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 e. 雪兒的聲音亮麗, 雪兒的容貌端莊, 雪兒曾經是一位演員。(雪兒의 목소리는 아름답고, 용모는 단정했다. 그녀는 한 때 배우이기도 했다.)

이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어에서 ‘밝다’는 청각적 전이의 예를 흔히 찾을 수 있는데 반해, 반의어인 ‘어둡다’는 청각적 전이의 예가 드물다는 점이다. 이런 비대칭현상은 언어코퍼스에서 ‘暗, 黑暗, 幽暗’ 등의 형용사가 소리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예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灰暗’이 청각으로 전이된 예는 다음 두 가지 예외에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a. 可惜她的思想被污染了, 連那使人聽來象唱歌似的聲音也是灰暗的, 真使人擔心。(안타깝게도 그녀의 사상은 오염되었다. 노래하듯이 들리던 그녀의 목소리마저 어두워 사람들이 걱정을 하였다.)
- b. 她的聲音灰暗而輕飄, …… (그녀의 목소리는 어두웠지만 가벼웠다. ……)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또 하나의 사실은 위의 시각형용사 외에도 ‘清, 濁, 深, 厚, 薄’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각형용사도 청각적 전이의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단음절이 아닌 이음절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4)를 보면, ‘重濁, 洪亮, 清晰, 清亮, 透明, 深沉, 清亮亮, 渾厚, 深沉, 深厚, 單薄, 重濁, 渾濁, 粗濁’ 등이 모두 소리를 묘사하

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深’은 공감각적 전이가 발생하지만, 반의어인 ‘淺’은 공감각적 전이를 찾을 수 없다.

- (4) a. 他呼吸急促, 聲音重濁。(그는 호흡이 가빴고, 목소리가 무겁고 탁하다.)
- b. 清晰洪亮的聲音。(또렷하고 낭랑한 소리)
- c. 他的聲音便越來越不清晰。(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다.)
- d. 我面前的陳修和先生, 身材挺直, 聲音清亮, 怎麼看也不像是98歲高齡的老人。(내 눈 앞의 陳修和 선생은 몸이 곧고, 목소리가 또렷하여, 아무리 보아도 98세 고령의 노인 같지가 않았다.)
- e. 小偷覺得她的聲音像水晶一樣透明。(도둑은 그녀의 목소리가 수정처럼 투명하다고 생각했다.)
- f. 大廳裏開始回響起她那深沉有力的聲音……(홀에 그녀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 g. 聲音也特別深厚。(목소리도 매우 깊었다.)
- h. 清清楚楚的是誰的聲音?(맑고 깨끗한 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 i. 人們總忘不了賈世駿那渾厚明亮、深情動人的歌聲。
- j. 清晰明亮的聲音。(또렷하고 밝은 소리)
- k. 那甜美清亮的聲音不減當年。(그 감미롭고 청청한 목소리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 l. 他深沉的聲音, 厚實而平穩, 深深打動了人們的心。(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충직하고 침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 m. 相信這份微薄之力終將集合更廣泛深厚的聲音。(이 미약한 힘이지만 결국 더 넓고 두터운 소리를 모을 거라고 믿는다.)
- n. 那是種單薄、刺耳的聲音, 讓人聽起來很難過。(그것은 작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여서 듣기가 몹시 괴로웠다.)
- o. 他的聲音是渾濁、模糊、全然陌生的。(그의 목소리는 혼탁하고 모호하며, 아주 생소하였다.)
- p. 雷賓走到跟前來, 用粗濁的聲音輕輕地問道:(雷賓은 앞으로 걸어왔다. 거칠고 탁한 목소리로 작게 물었다.)
- q. 聲音混濁淒涼。(목소리가 탁하고 처량하다.)

그러면 왜 단음절어인 ‘清, 濁, 亮, 暗, 厚, 薄, 深’은 소리를 수식하거나 서술하지 않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이음절어가 이를 대체했을까의 의문이 남는다. 필자의 생각으로 (1)의 시각형용사들에 비해 이들은 사용빈도가 낮아 단음절로 직접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이 발달되지 않았고, 이러한 용법은 이음절어가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아래 예 (5)를 보면, ‘遠, 近’이 소리를 수식하거나 서술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 (5) a. 但是人的耳朵最靈敏, 很遠很遠的聲音都能聽見。(하지만 사람의 귀가 가장 예민하여, 아주 먼 곳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다.)
 b. 聲音已經很遙遠。(소리가 벌써 아주 멀어졌다.)
 c. 傳紅雪的聲音仿佛很遠。(傳紅雪의 목소리가 아주 먼 것 같았다.)
 d. 聲音很近了!(소리는 아주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는 소리 자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소리가 발생하는 공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므로 본고에서는 공감각적 의미전이로 보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도 (6)에서 보듯이 ‘날카롭다, 뾰족하다’를 뜻하는 ‘尖, 尖利, 尖銳¹⁰⁾’ 등도 소리를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 (6) a. 能連續不斷發出尖銳的聲音。(날카로운 소리를 끊임없이 낼 수 있다.)
 b. 聲音又尖又響亮。(소리는 날카롭고 크게 울렸다.)

2) 시각 → 촉각

허정영(2011)에서는 시각형용사가 촉각 속명명사인 ‘촉감(感覺)’와의 결합양상을 살펴본 결과 정상적이지 않은 표현이 되므로, 중국어 시각형용사가 촉각으로의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김찬화(2010)에서는 시각형용사와 촉각 속성명사 ‘手感’의 결합이 가능하지 않으

10) ‘날카롭다, 뾰족하다, 예리하다’의 의미는 시각으로도 지각이 가능하지만, 촉각으로도 지각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촉각형용사로 보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촉각 이전에 시각으로 바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촉각형용사보다는 시각형용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므로 촉각으로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혜원(2006)은 시각 형용사는 청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 영역으로의 전이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모두 시각형용사의 촉각으로의 전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본고의 조사 결과도 대체로 이와 같다. 하지만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보자.

- (7) a. 梁波打開門，月光帶頭濃重的寒氣撲進門來。(梁波가 문을 열자, 달 빛이 짙은 한기를 머금고 문을 향해 돌진한다.)
 b. 看著那麼白，原來皮膚很粗。(보기엔 희어도, 알고 보면 피부가 거칠다.)

‘濃重’은 ‘안개·냄새·색채 등이 농후하다. 짙다’의 의미로 시각형용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寒氣’를 수식하고 있는데, ‘寒氣’는 촉각속성 명사는 아니라도 촉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볼 때 이는 촉각으로의 전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또 ‘粗’의 기본의미를 ‘굵다’로 하여 시각형용사로 본다면, 여기서는 피부가 거칠다는 촉감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역시 촉각으로의 의미전이에 해당된다. 즉, 의미전이를 판단하는데 시각형용사와 촉각속성 명사인지의 판단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중국어에서 시각형용사의 촉각적 의미전이는 매우 드물어 보인다.

3) 시각 → 미각

시각 형용사가 미각을 나타내는 것을 시각의 미각적 전이라고 한다. 우리말에서 공간을 나타내는 시각형용사 ‘깊다, 얕다’가 미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커피의 깊은 맛’이라 하면 커피의 맛이 숙성되어 잘 우려낸 커피의 맛을 뜻한다. 또 ‘얕은 맛’의 의미는 ‘진하지 않으면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명시되어 있다.¹¹⁾ 반면, 중국어에

11) 네이버 국어사전

서 ‘深味, 淺味’가 모두 어색한 표현이 된다. 하지만 중국어 ‘薄, 清, 厚, 濃厚’의 경우 매우 드물게 미각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濃厚’의 1차적인 의미는 ‘(煙霧、雲層等)很濃’으로 안개나 구름이 짙음은 시각을 통해 지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본고에서는 시각형용사로 보도록 한다.¹²⁾

- (8) a. 很清的味道. (깔끔한 맛)
 b. 很厚的一種味道. (진한 맛)
 c. 酒味濃厚. (술 맛이 진하다.)
 d. 酒味很薄. (술 맛이 순하다.)

4) 시각→후각

시각형용사의 후각으로의 전이는 주로 미각으로의 전이와 유사하다. ‘濃厚, 大’가 후각영역으로 전이되어 ‘냄새가 짙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薄’와 같은 형용사는 ‘냄새가 얇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 (9) a. 煮出粥來, 米長半寸, 顏色淺碧如碧蘿春, 香味濃厚. (죽을 끓이니, 쌀 길이는 반치이고, 색깔이 연한 碧蘿春과 같으며, 향이 진하다.)
 b. 醋的色澤紅潤, 有濃厚的薑汁香氣, 味酸而鮮甜. (식초의 색이 붉게 윤이 나며, 짙은 생강즙 향이 나고, 맛은 시고 달콤하다.)
 c. 果然味兒大. (과연 냄새가 진하다.)

이상으로 중국어에서 시각의 의미전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시각형용사는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모든 감각영역으로 의미전이가 발생함을 보았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청각으로의 의미전이이며, 촉각으로의 전이가 가장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혜원(2006)에서 공간의미의 시각형용사가 모든 감각으로 전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본고의 결과와

12) 하지만 허정영(2011:26)에서도 지적하였듯이 ‘濃’은 사전적 의미가 ‘含某種成分多’이므로 시각형용사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때 ‘濃’의 반의어인 ‘淡’의 경우 1차적인 의미가 ‘含鹽分少’로 미각형용사라는 점이다.

유사하다. 하지만, 청각으로의 의미전이에서 ‘밝다, 어둡다, 맑다, 탁하다’와 같은 일부 시각형용사에 대해 청각으로의 의미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각의 의미전이 양상

청각은 귀를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작용으로 소리 등을 지각하는 형용사를 청각형용사로 할 수 있다. 대개 ‘시끄럽다, 요란하다, 날카롭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噪, 喧嘩, 嘈雜, 吵, 嘈嘈, 尖厲’ 등과 ‘조용하다, 고요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安靜, 清淨, 肅靜, 寂靜, 悄悄’, ‘소리가 또랑또랑하다, 맑다’의 ‘朗朗, 高亢, 響亮, 嘹亮, 清脆¹³⁾’ 등의 형용사들이 이에 속한다.¹⁴⁾ 청각의 공감각적 전이는 청각형용사가 다른 감각으로 표현됨을 의미한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허정영(2011:29-30)에서는 한국어에서 ‘요란한 색’이 가능한 표현이지만, 중국어에는 이에 대응하는 ‘嘈雜的聲音’은 일상생활에서 안 쓰이는 표현이며, 청각형용사는 시각, 미각, 후각, 촉각으로 한중 양국 언어에서 모두 전이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김혜원(2006:128)에서는 ‘他的聲音帶著一種悲哀的色調’를 예로 색깔을 나타내는 시각영역에 속하는 ‘色調’가 목소리의 감정색채를 표현하는 청각영역으로의 전이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色調’는 형용사가 아닌 명사이므로 시각명사가 청각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경우로 감각형용사의 의미전이라고 볼 수 없다. 또 李穎(2010:49)에서는 다음 ‘高亢, 朗朗, 響亮’의 예를 시각으로의 전이로 설명하고 있다.

13) ‘清脆’의 1차적인 의미는 ‘(聲音)清楚悅耳’이며, 2차적인 의미는 ‘(食物)脆而清香’로 분고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청각형용사로 보기로 한다. 《現代漢語詞典》(2002年增補本), 1032쪽. 商務印書館 2003年.

14) 김찬화(2010:69)에서는 청각형용사를 [+소리]와 [-소리]의 두 특성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예로 ‘喧嘩, 嘈雜’을, 후자의 예로 ‘安靜, 消停, 清靜’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 (10) a. 那裏是一片高亢的山坡地。(그 곳은 높은 산비탈 밭이다.)
 b. 朗朗的天日 (밝게 빛나는 하늘과 태양)
 c. 響亮的目光 (울려 퍼지는 눈빛)

위에서 ‘高亢’과 ‘朗朗’을 보면, 사전에서 청각이 첫 번째 의미항목이고, 두 번째 항목이 시각이다. 본고에서는 형용사의 기본의미를 사전에 나온 첫 번째 의미항목으로 보고, 다른 감각으로의 전이를 공감각적 의미전이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위의 예는 청각의 시각으로의 전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언어코퍼스에 대한 조사 결과, ‘高亢’과 ‘響亮’은 모두 청각적 용법으로만 사용되었고, 시각영역에 사용된 예는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다음 예처럼 ‘朗朗’의 경우에는 시각영역으로 사용된 예가 있다.

- (11) a. 有一次，他班上的戰士執勤時，朗朗晴空突然烏雲密布，雷聲大作，傾盆大雨蓋頭蓋腦落下來…… (한 번은 그의 내무반에 전사가 당직을 서고 있는데, 맑은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더니 천둥소리가 진동하고 폭우가 머리위로 쏟아졌다.)
 b. 他們肩並肩地走出飯店，此時已月朗朗星燦燦的了，……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호텔을 나섰다. 그때 벌써 달빛은 밝게 빛나고, 별빛이 찬란했다.)
 c. 他們展開青春的翅膀，時而盤旋於朗朗的藍天，時而翱翔在崇山峻嶺，…… (그들은 청춘의 날개를 펼치고, 때론 맑은 하늘을 선회하고, 때론 높은 산과 봉우리 위를 난다.)

《現代漢語詞典》에서 ‘朗朗’을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항목은 ‘形容清晰響亮的聲音’이고, 두 번째 의미항목이 ‘形容明亮’이다.¹⁵⁾ 전자를 기본의미로 본다면 ‘朗朗’은 청각형용사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위의 예들은 시각으로의 전이에 해당된다.¹⁶⁾ 그 외 다른 청각형용사들이 시각으로 전이된 예

15) 《現代漢語詞典》(2002年增補本), 753쪽. 商務印書館 2003年. 하지만 ‘朗朗’의 단음절어인 ‘朗’의 첫 번째 의미가 ‘光線充足; 明亮’이고, 두 번째 의미가 ‘聲音清晰響亮’으로 시각형용사로 볼 수 있다.

는 찾을 수가 없었다.

3. 촉각의 의미전이 양상

촉각은 피부에 닿아 느껴지는 감각으로 중국어에 자주 보이는 촉각형용사로는 ‘涼, 涼快, 涼爽, 冷, 冷冰冰, 冰冷, 冰涼, 寒冷, 刺骨, 清涼, 清冽, 清爽’과 같은 시원하고 차가움을 나타내는 어휘와 ‘暖, 溫和, 溫暖, 熱, 熾熱, 灼熱, 火熱, 火辣辣, 熱烘烘, 熱辣辣’처럼 따뜻하고 뜨거움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다. 또 ‘輕, 重, 沉, 沉甸甸, 沉重’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과 ‘軟, 輕柔, 柔和, 柔軟, 綿軟, 軟綿綿, 硬, 生硬, 堅硬, 銳利, 犀利’처럼 부드럽고 딱딱함, 뾰족함, 날카로움을 나타내는 것과 ‘幹, 燥, 幹巴巴, 乾燥, 潮, 濕, 潮濕, 濕潤’처럼 건조하거나 습함을 나타내는 어휘들이다. 촉각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양상을 살펴보자.

1) 촉각 → 시각

중국어에서 촉각형용사의 시각으로의 전이의 예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주로 ‘부드럽다, 따뜻하다, 차갑다, 날카롭다, 딱딱하다, 무겁다’ 등을 나타내는 ‘溫和, 溫暖, 柔和, 冰冷, 銳利, 生硬, 沉重’과 같은 형용사가 사람의 눈길이나 표정, 태도와 같은 신체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 (12) a. 一種溫和的表情籠罩在這張臉上。(일종의 온화한 표정이 얼굴에 가득찼다.)
 b. 她有一雙開朗溫暖的眼睛。(그녀는 맑고 따뜻한 눈을 가졌다.)

16) 가령 ‘眼神很靜, 像清湛的潭水’와 같은 예를 보면, ‘靜’의 첫 번째 의미항목이 ‘安定不動’(《現代漢語詞典》(2002年增補本), 672쪽)으로 시각을 나타내고, 두 번째 의미항목이 ‘沒有聲響’이므로 청각을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 의미항목을 기본의미로 보아 ‘靜’을 시각형용사로 보았다. 따라서 ‘眼神很靜’을 공감각적 전이로 보기 어렵다.

- c. 她的面容很柔和, 但態度冷漠。(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웠지만, 태도는 차가웠다.)
- d. 只是他表情嚴峻, 眼神冰冷, 顯得有些悲愴肅穆。(다만 그의 표정을 엄했고, 눈빛은 차가워서 슬픔과 엄숙함이 있어보였다.)
- e. 它有一雙銳利的眼睛, 觀察四方。(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사방을 관찰하였다.)
- f. 對方態度十分生硬。(상대방의 태도는 매우 딱딱했다.)
- g. 隨後他又帶著他那種鎮靜沉重的態度說: …… (곧이어 그는 또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로 말했다.)
- h. 頭髮長長, 表情冷冷, …… (머리카락은 길고, 표정은 차가웠다.)
- i. 他的腦海中常常閃現出她圓圓的臉龐, 和那充滿深情的火熱的目光。(그의 머릿속에는 늘 그녀의 둥그란 얼굴과 정이 가득한 뜨거운 눈빛이 언뜻 나타나곤 한다.)
- j. 謝小玉無視於他的反抗, 神色更冷, 聲音更寒。(謝小玉은 그의 반항을 무시했다. 표정은 더욱 차가웠고, 목소리는 더욱 서늘했다.)
- k. 他說這話的時候, 表情很沉重。(말을 할 때 그의 표정은 아무 무거웠다.)

이 밖에도 촉각형용사가 시각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한 경우도 있다. (13a)에서 ‘안개’라는 시각으로 인지되는 명사를 ‘무겁다’의 뜻인 ‘重’으로 수식하여 ‘안개가 짙다’를 나타내고 있다. (13b)와 (13c)에서도 ‘柔和, 涼爽’이 시각으로 인지되는 ‘燭光, 綠色屏障’을 수식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도 촉각의 시각화로 볼 수 있겠다.

- (13) a. 那是個霧氣很重的傍晚, 一個漢子隨著槍響, 倒在大山的腳下。(안개가 짙은 저녁이었다. 한 사내가 총소리와 함께 산기슭에 쓰러졌다.)
- b. 柔和的燭光讓他覺得十分安詳, 有家的味道。(부드러운 촛불 때문에 그는 매우 아늑하여 집에 온 느낌이었다.)
- c. 一旦到了夏季, 不僅可使陽台變成美麗涼爽的綠色屏障, 還可以種瓜得瓜, 種豆得豆, 收到實惠的效果。(일단 여름이 되면, 베란다

를 아름답고 시원한 녹색병풍으로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오이도 심고 콩도 심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촉각 → 청각

중국어에서 촉각형용사의 청각으로의 전이 역시 자주 보인다. 흔히 볼 수 있는 예들은 ‘날카로움, 거침’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말들이 ‘음성’이나 ‘소리’와 같은 청각영역으로 전이되는 경우이다. 김찬화(2010:126), 허정영(2011:42)에서 모두 ‘부드러운 소리’를 나타낼 때, ‘柔軟的聲音’은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溫柔的聲音’만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14n), (14o)에서 보듯이 ‘柔軟’은 소리를 묘사하는 데에도 비교적 자주 사용된다. 또 허정영(2011:43)에서 ‘거친 소리’를 나타낼 때, ‘粗糙的聲音’이 정상적인 중국어 표현이 아니며, ‘聲音粗’나 ‘粗聲粗氣’가 정상적인 표현이라 하였으나, 다음 예 (14p), (14q), (14r)에서처럼 ‘粗糙’가 소리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4) a. 仿佛還有叫喊, 聲音尖銳得把霧撕碎成零片。(마치 또 외침이 있는 듯 같다. 소리는 마치 안개를 잘게 찢을 듯이 날카로웠다.)
 b. 這人說話的聲音生硬尖刻。(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날카로웠다.)
 c. 他用槍把敲著鐵門, 發出沉重的響聲, 狠狠地罵道。(그는 총자루로 철문을 두드렸고, 무거운 소리가 울렸다. 그는 심하게 욕을 했다.)
 d. 聲音裏帶著深深的溫暖。(목소리에 깊은 따스함이 베어있다.)
 e. 這聲音聽起來像是溫暖的陽光一樣和煦。(이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태양처럼 따스롭게 들렸다.)
 f. 他的聲音已經比較地和暖得多了。(그의 목소리는 이미 많이 누그러졌다.)
 g. 根本不等對方搭話就用討厭而幹燥的聲音說:…… (아예 상대방이 말을 걸기를 기다리기도 전에 혐오스럽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h. 二胡的聲音是軟的, 古琴的聲音是硬的。(二胡의 소리는 부드럽고,古琴의 소리는 딱딱하다.)

- i. 她抬起頭來, 眼光銳利的緊盯著雨杭, 聲音冷峻如寒冰。(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날카롭게 雨杭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 j. 還沒有走得太近, 木屋裏已傳出葉雪的聲音, 又濕又冷的聲音: “什麼人?”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나무집에서 이미 葉雪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습하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 k. 謝小玉無視於他的反抗, 神色更冷, 聲音更寒。(謝小玉은 그의 반항을 무시했다. 표정은 더 냉정하고,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다.)
- l. 她的聲音輕了下去, …… (그의 목소리가 가벼워졌다.)
- m. 這時平房裏有搬動家具的沉重聲音。(이 때, 단층집에서 가구를 옮기는 무거운 소리가 들렸다.)
- n. 蘇小姐的聲音很柔軟, …… (蘇아가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 o. 她用柔軟的聲音說道。(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 p. 聲音比較粗糙。(목소리가 좀 거칠다.)
- q. 他說起話來聲音粗糙, 舉止態度又極端粗野。(말을 할 때 그의 소리가 거칠고, 행동거지가 극도로 난폭하다.)
- r. 接著在四面的木板上, 起了一陣粗糙的摩擦聲音, …… (이어서 사방의 나무판에서 거친 마찰소리가 들렸다.)

3) 촉각 → 미각

촉각의 미각으로의 전이는 촉각형용사가 미각영역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어에서 이에 해당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선행연구를 보면 김혜원(2006:124)에서는 ‘味道柔和’만을 촉각의 미각(후각)으로의 전이의 예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김찬화(2011:127)에서는 촉각의 미각적 전이를 부정하고 있다. 허정영(2011:44-45)에서는 ‘부드러운 맛’을 나타내는 ‘柔和的味道’¹⁷⁾와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다’를 뜻하는 ‘맛이 무겁다’의 의미인 ‘味道重’은 가능한 표현으로 보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예도 이와 유사한데, 다음 예 (15a)의 ‘口味重’에서 ‘重’과 (15b)의 ‘清爽’, (15c)의 ‘柔和’는 촉각에서 미각영역으로 전이된 예로 볼 수 있다.

17) 이 때 ‘柔軟的味道’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라고 보았다. 허정영(2011:45)

- (15) a. 口味挺重。(맵고 짠 걸 좋아한다.)
 b. 砵螯好像是淡水裏產的，但味道卻似海鮮。有點像蠔黃，但比蠔黃味道清爽。(砵螯는 아마 민물에서 생산되는 듯 하나, 맛은 해산물과 같다. 굴과 같지만, 굴보다 맛은 더 시원하다.)
 c. 黑米鍋巴一投放市場便引起廣大消費者的青睞，它那清香、甘甜、柔和的滋味，正受到飲食者的歡迎。(흑미 누룽지는 출시되자마자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 고소하고 달콤하며 부드러운 맛은 미식가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음 예를 보면, 촉각형용사 ‘溫和’가 음식물인 ‘香片茶’를 수식하고 있지만,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창의 맛에 대한 묘사로 보기보다 음식물 온도가 ‘따뜻하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듯하다.

- (16) 在北平，有溫和的香片茶就夠了。(베이핑에서 따뜻한 차스민차가 있으면 충분하다.)

4) 촉각 → 후각

중국어에서 촉각의 후각으로의 전이는 주로 ‘무겁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촉각형용사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면 (17a)의 ‘重’, (17b)의 ‘清涼’, (17c)의 ‘溫暖, 暖暖, 溫暖迷人, 暖烘烘’ 등은 모두 촉각을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여기서는 후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 (17) a. 氣味較重，…… (냄새가 좀 강했다. ……)
 b. 清涼的薄荷味兒。(시원한 박하향기)
 c. 我認爲這是最令人感到愉快和溫暖的氣味。(나는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유쾌하고 따뜻한 냄새라고 생각한다.)
 d. 劉果就真切地在阿英身上聞到一股暖暖的味道。(劉果는 阿英의 몸에서 따뜻한 냄새가 나는 것을 분명히 맡았다.)
 e. 到處都充滿香味，油味酒味，在這些溫暖迷人的氣味中間，又流竄

著一陣陣的流竄煙霧，一陣陣的笑語和歡聲。(곳곳에 향기, 기름 냄새, 술 냄새가 가득했다. 이런 따스하고 황홀한 냄새 가운데 또 이따금씩 연기와 웃음소리, 환호성이 섞여 있었다.)

- f. 這暖烘烘的味道，攙了脂粉香和花香，……(이 따뜻한 냄새에 화장품냄새와 꽃향기가 섞여 ……)

이상으로 중국어 촉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중국어에서 촉각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영역으로 모두 전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미각의 의미전이 양상

중국어에서 미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많지가 않은데 대표적인 것들로 ‘辣, 辛辣, 鹹, 酸, 酸澀, 酸溜溜, 甜, 甘甜, 甜蜜, 甜美, 甜絲絲, 苦, 苦澀, 淡, 淡薄, 鮮美’ 등이 있다. 미각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양상을 살펴보자.

1) 미각 → 시각

김찬화(2010:127)와 허정영(2011:35)에서는 중국어에서 미각형용사가 시각으로 전이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언어코퍼스를 검색해보면 미각의 시각으로의 전이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보이는 예로는 ‘쓰다, 달다, 시다’의 뜻을 가진 ‘苦’나 ‘甜’, ‘酸’ 등이 얼굴표정이나 사람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18a)과 (18b)를 보면, 시각으로 확인되는 미소와 보조개를 묘사하기 위해 미각형용사인 ‘香甜’과 ‘甜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들은 흔히 찾을 수 있다.

- (18) a. 微笑像果實般香甜。(미소가 과일처럼 향기롭고 달콤하다.)
b. 亮亮的眼神，甜甜的笑靨，……(반짝이는 눈빛, 달콤한 보조개, ……)

- c. 沒有表情的臉上泛出一絲苦笑。(표정 없는 얼굴에 한 가닥 쓴 웃음이 떠올랐다.)
- d. 臉上露出苦澀的表情。(얼굴에 쓴 표정을 드러냈다.)
- e. 他回頭一看, 便苦了臉, 穿著警服的妻子表情嚴肅地站在他身後。(그가 고개를 돌려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경찰복을 입을 아내가 엄숙한 표정으로 그의 뒤에 서 있었다.)
- f. 我希望他看人的眼神跟那個人一樣甜美。(나는 그가 사람을 보는 눈빛이 그 자신처럼 달콤하길 바란다.)
- g. 小黃有一張娃娃臉, 臉上布滿甜甜微笑, 性格溫柔像處子。(小黃은 아이같은 얼굴에 달콤한 미소가 가득 했고, 성격은 처녀처럼 부드러웠다.)
- h. 她長得並不十分美麗, 但卻很甜, 臉上經常帶有一絲陽光般的微笑。(그녀는 그렇게 미인은 아니지만, 달콤하게 생겼다. 얼굴엔 늘 태양같은 미소를 지니고 있다.)
- i. 田文有一對會說話的大眼睛, 甜甜的娃娃臉, ……(田文은 말할 수 있는 한 쌍의 큰 눈과 달콤한 앳된 얼굴을 지녔다. ……)
- j. 他那充滿酸澀的表情, ……(그의 슬프고 괴로움이 가득한 표정, ……)
- k. 成天鑽在古書堆裏, 一個書蟲子, 還成天戴著禮帽、穿著長袍, 一副酸溜溜的樣子, 有什麼可愛的!(하루 종일 고서 무더기 속에 파묻혀서 책벌레처럼 예모를 쓰고, 도포를 입고 시름한 모습이 뭐가 귀여운가!)

2) 미각 → 청각

미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청각으로 투영되어 공감각적 의미전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흔히 볼 수 있는 예로는 앞에서 살펴본 미각의 시각으로의 전이와 같이 ‘달다, 쓰다, 시다’의 의미를 가진 미각형용사가 ‘소리’와 함께 쓰인 경우이다. 다음 예를 보자. (19a-c)의 ‘甜言蜜語, 甜美的聲音, 甜蜜的歌聲’에서처럼 ‘달다’가 ‘소리’와 결합하는 경우는 흔하다. 그 밖에 ‘酸溜溜, 辛辣, 淡, 清脆, 苦澀’ 등의 미각형용사도 청각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 a. 沉醉在海誓山盟的甜言蜜語之中。(산과 바다처럼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는 감언이설에 취해있다.)
 b. 甜美的聲音裏透出絲絲苦澀和無奈。(감미로운 목소리에 희미한 괴로움과 무기력함이 보인다.)
 c. 那特有的清麗柔美的嗓音能唱出一陣甜蜜的歌聲。(그 특유의 청아하고 수려한 목소리가 달콤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d. 你酸溜溜地聲音讓我牙根都發酸, …… (너의 슬픈 목소리로 나의 잇몸까지 시큰하다……)
 e. 有一個幽默、辛辣而又顯得沉鬱的聲音卻發出了一聲響亮的吶喊, …… (유머러스하고 신랄하면서 침울해 보이는 목소리지만 우렁찬 합성소리를 내었다.)
 f. 他漸漸感到周圍“向勞模學習”的呼聲越來越淡了, 對他的不滿和非議多了。(그는 점차 주위에서 ‘모범노동자를 본받자’는 구호가 점점 작아지고, 그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많아지는 것을 느꼈다.)
 g. 清脆的聲音, 來自白雲間, 白雲間忽然又出現了一條淡紅色的人影。(구슬이 구르는 소리가 흰 구름 사이에서 들려오더니, 흰 구름 사이로 문득 담홍색의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
 h. 他低柔的聲音十分苦澀。(낮고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는 아주 쓸쓸했다.)

3) 미각 → 후각

마찬가지로 미각형용사의 후각으로의 의미전이는 주로 미각영역의 단맛과 쓴 맛, 신 맛이 후각영역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 (20) a. 有些婦女把茉莉放在精心編織的小花籃裏, 掛於蚊帳中, 連睡夢都充滿著濃鬱的香甜味。(어떤 여자들은 모리화를 정성스럽게 짠 작은 꽃바구니에 놓고, 꿈속에서도 진한 향기가 가득하도록 모기장에 걸어둔다.)
 b. 煮熟的小米飯, 噴香甘甜。(다 익은 밥은 달콤한 향이 진동한다.)
 c. 走到後門, 能聞到這所老房子甜絲絲的黴味。(후문에 다다르자 이 옛 집에서 달짝지근한 곰팡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

- d. 他在坑裏扒出一些鮮樹根, 聞聞味道, 絲絲甘甜。(그는 구덩이에서 싱싱한 나무뿌리를 캐내서 냄새를 맡아보니 달짝지근했다.)
- e. 他們從石東根的話音裏聞到了酒的苦味似的, 不由地促促鼻子。(그들은 石東根의 말에서 술의 쓴 냄새 같은 것을 맡고는 자신도 모르게 코를 찡그렸다.)
- f. 林宛芝從她們的話裏聞到了酸味。(林宛芝은 그들의 말 속에서 시큼한 냄새를 맡았다.)
- g. 聞到一股酸溜溜的味道, 心頭不禁一怔。(시큼한 냄새를 맡고서 정신이 멍해졌다.)
- h. 他們在樓梯上就聞到了一股酸酸的血腥味。(그들은 계단에서 시큼한 피비린내를 맡았다.)
- i. 但最重要的是, 它能聞到它的兔子, 熱乎乎的, 味道鮮美, 晚餐已經準備好了。(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토끼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 j. 你感到他的嘴巴裏有一股苦味, 是煙草的氣味, 又不太像。(너는 그의 입에서 쓴 냄새를 맡았는데, 담배냄새인가 하면 또 아닌 것 같았다.)

4) 미각 → 촉각

미각형용사가 촉각으로 의미전이가 발생한 예는 드물다. 김찬화(2010: 124)에서는 모두 ‘腳脖子酸(발목이 시다)’가 미각형용사 ‘酸’이 신체어와 결합하여 촉각으로의 전이로 보았다. 또 허정영(2010) 역시 미각형용사가 ‘촉감’같은 촉각 속성명사에 결합되면 ‘?很酸的觸覺’와 같이 어색하기 때문에 ‘腿酸’처럼 ‘다리’라는 구체적인 신체 대상물과 결합되어야만 촉각으로의 전이가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도 중국어에서 ‘시다’를 뜻하는 ‘酸’, ‘酸溜溜’가 신체부위와 결합하여 신체부위가 과로 등으로 시큰시큰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촉각으로의 전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예는 비교적 흔히 찾을 수 있다.

- (21) a. 才感到胳膊有些酸。(비로소 팔이 좀 쭈시는 걸 느꼈다.)

- b. 我這時已站了約三個多鐘頭了，腿也酸了。(이 때 나는 벌써 세 시간여를 서 있어서, 다리가 쭈셨다.)
- c. 聽完他的話，我眼睛裏酸溜溜的。(그의 말을 들으니, 내 눈이 시큰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중국어 미각형용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모든 감각으로 전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후각의 의미전이 양상

후각은 코로 느끼는 냄새의 자극에 대한 감각을 말한다. 중국어 기본 후각형용사로는 ‘향기롭다, 고소하다, 비리다, 노리다, 지리다, 구리다’의 의미를 가진 ‘香¹⁸⁾, 臭, 膻, 臊, 腥, 腥臭, 血腥’ 등이 이에 속한다. 후각의 공감각적 의미전이를 살펴보자.

1) 후각 → 시각

중국어 후각형용사의 시각으로의 전이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김혜원(2006)과 김찬화(2010)에서는 모두 시각으로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허정영(2011:37)에서는 중국어에서 ‘臭臉’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표정이 어두워 보기에 구린내를 맡듯 기분 나빠질 수 있는 얼굴색을 뜻하며, 이를 후각형용사 ‘臭’가 시각 특성을 가진 명사 ‘臉’과 결합되어 후각의 시각적 전이의 예로 보았다. 본고의 조사에서도 중국어에서 ‘臭臉’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 ‘血腥’, ‘腥臭’이 시각의 특징을 가진 ‘爆炸場面’, ‘一縷青煙’과 결합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시각의 미각적 전이로 볼 수 있다.

18) 《現代漢語詞典》에서 ‘香’의 1차적인 의미는 후각영역을 나타내는 ‘(氣味)好聞(跟‘臭’相對)’이고, 2차적 의미가 ‘食物味道好’으로 미각영역을 나타낸다.(《現代漢語詞典》(2002年增補本), 1373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첫 번째 의미항목을 기본의미로 보아 ‘香’을 후각형용사로 보았다.

- (22) a. 瞧那副臭臉, 看了就討厭…… (저 역겨운 얼굴을 좀 봐라, 보면 혐오스러워……)
 b. 但從來沒見到過如此血腥的爆炸場面。 (하지만 여태껏 이처럼 피비린내나는 폭발장면은 본 적이 없었다.)
 c. 隨著一聲聲慘叫, 一縷縷腥臭的青煙升起。 (마디마디 외침소리 따라 가다가닥 비릿한 푸른 연기가 솟아올랐다.)

2) 후각 → 미각

중국어에서 미각 영역인 맛을 뜻하는 ‘味道’는 동시에 후각 영역인 ‘냄새’의 의미도 가진다. 따라서 중국어의 후각영역과 미각영역은 서로 통한다. 많은 미각 형용사들이 동시에 후각의 의미도 나타내며, 후각 형용사도 미각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여 두 영역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혜원(2006)에서는 미각과 후각의 의미전이를 교차전이라 하였다. ‘고소하다’의 의미인 ‘香’은 후각영역을 나타내는 동시에 미각영역도 나타낸다. 다음 예 (a)에서는 ‘香’이 미각영역으로 전이된 예로 볼 수 있다. (b)(c)의 ‘血腥味’ 역시 미각영역으로 전이되어 ‘비릿한 맛’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 (23) a. 後來偶爾檢到被火燒死的野獸, 拿來一嘗, 味道挺香。 (나중에는 가끔 불에 타 죽은 짐승을 줍기도 했다. 가져와서 먹으면 정말 맛있었다.)
 b. 她感覺到口中有血腥味。 (그녀는 입속에서 피비린내를 느꼈다.)
 c. 還緊緊地捏著那柄牙刷, 嘴裏卻有一種血腥味兒和牙膏混雜在一起的味道, 我忙哆哩哆嗦買了一瓶汽水, 嗽了一下口, 就喝了下去。 (칫솔을 움켜쥐었다. 집에선 비린내와 치약이 섞인 맛이 났다. 나는 급히 탄산음료를 한 병 사서 입을 헹구고는 마셨다.)

3) 후각 → 청각, 촉각

김혜원(2006), 김찬화(2010), 허정영(2011:37-38)에서는 모두 중국어에서 후각의 청각적 전이와 촉각적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고

에서 살펴본 결과, 역시 후각의 청각, 촉각으로의 전이의 예를 찾기가 어려웠다. 다만 다음 한 예를 보면 표면적으로 후각에 해당하는 ‘血腥’이 청각 속성인 ‘歌聲’을 수식하고 있어 후각의 청각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 a. 這以前, 我的心也曾充滿過血腥的歌聲:……。 (이전에 내 마음도 피비린내 나는 노래 소리로 가득했었다. ……)

이상으로 중국어의 후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을 살펴보았다. 중국어에서 후각은 공감각적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시각, 미각, 청각으로의 전이 예를 소수 발견할 수 있었다.

IV. 나오며

본고에서는 감각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중국어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양상에 대해 북경대 언어코퍼스를 통해 살펴보았다. 감각형용사의 판정에 대해서는 《現代漢語詞典》의 의미항목을 기준으로 첫 번째 의미항목이 나타내는 감각을 기본의미로 하였다. 본고의 조사결과, 각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양상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는 특정한 감각으로의 의미전이 유무의 차이도 있고, 의미전이 유무는 동일한데 구체적인 감각형용사의 전이양상에 차이가 나기도 했다.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형용사는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모든 감각영역으로 의미전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李穎(2010)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은 촉각으로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드물지만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 청각으로의 전이양상에 대해서도

‘밝다’가 소리와 결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본고의 조사 결과 이음절어의 경우에 흔히 결합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감각형용사의 판정기준에 따라 공감각적 전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가령 사전의 1차 의미를 기준으로 ‘朗朗’을 청각형용사로 보면, 시각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한 예는 청각의 시각적 전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촉각형용사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영역으로 모두 쉽게 전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李穎(2010), 김혜원(2006), 허정영(2011)의 연구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나, 촉각의 미각, 후각으로의 전이를 인정하지 않는 김찬화(2010)와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도 구체적인 감각형용사의 전이양상에 대해서는 또 차이를 보인다. 가령 선행연구에서는 ‘柔軟的聲音’이나 ‘粗糙的聲音’이 정상적인 중국어표현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이들은 자주 사용되는 예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넷째, 미각형용사 역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모든 감각으로 전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역시 李穎(2010), 김혜원(2006), 허정영(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본고에서는 ‘시다’를 뜻하는 ‘酸’, ‘酸溜溜’가 신체부위와 결합하여 신체부위가 시큰시큰하디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촉각으로의 전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후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어에서 후각은 시각, 미각, 청각으로의 전이 예를 극소수 발견할 수 있을 뿐, 공감각적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감각임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劉珍, <“通感”與英漢感覺形容詞詞義轉移的對比分析>, 《重慶工學院學報》

第3期, 2004.

劉珍, <感官形容詞詞義演變分析>, 《湛江海洋大學學報》 第2期, 2004.

李穎, <通感的日漢比較研究>, 西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김혜원, <중국어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특징>, 《중국학연구》 제38집, 2006.

김찬화, 《韓·中 감각형용사 의미 구조》, 한국학술정보(주), 2010.

허정영, <한·중 감각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전이 대조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中文提要>

‘通感’可以是一种认知方式, 同时也可以是一种心理活动, 描写这种心理活动的语言手段是修辞学。因此通感是一种常见的修辞手法, 是古老的语言现象。人类具有共同的生理和心理基础, 通感在很大程度上依赖于人类思维模式的共性, 但同时也表现出民族文化特征。通感隐喻在本质上是五种感觉之间的映射。

本文从认知语言学的通感隐喻的角度, 对现代汉语中表示五官的感官形容词进行了系统的调查研究, 并对它们进行了分析和论述。本文同时试图对以往的通感研究进行树立和修补, 从而对为中韩通感的深入研究提供资料。

주제어 : 感官形容词, 五官, 通感, 词义转移, 认知